

## 23. 명령과 부탁 표현하기

23강에서는...

- 1) 부탁의 동사 'กรุณา (까루나-)' 표현을 알아봅시다.
- 2) 부탁의 동사 'โปรด (쁘로-스)' 표현을 알아봅시다.
- 3) 명령의 어조사를 알아봅시다.

<태국의 문화> 태국의 외교

### 1. 부탁의 동사 'กรุณา (까루나-)'

① กรุณา (까루나-): ~해주세요, ~하세요

- กรุณา (까루나-) + 동사

ฟัง	ฟัง(f)	듣다
ทัน	탄	따라잡다, 제시간에 되다
ช้า	차-	느리다, 천천히
อีก	이-ก	다시, 더
ครั้ง	크랑	번, 회,

ขอโทษครับ ผมฟังไม่ทัน

(커-토-스 크랍, 폼 팡(f) 마이 탄): 죄송합니다만,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 [EBS 초급 태국어]

กรุณาพูดช้า ๆ อีกครั้งครับ

(까루나- 푸-ˆ ˆ 차차- 이- ˆ ˆ 크랑 크랍): 다시 한 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แลกเงิน	래-ˆ ˆ 응원	환전하다
เซ็นชื่อ	센 ˆ ˆ	서명하다

คุณจะแลกเงินหรือคะ

(쿤 짜 래-ˆ ˆ 응원 ˆ ˆ 카): 당신은 환전하려고 하시나요?

กรุณาเซ็นชื่อที่นี่ค่ะ

(까루나- 센 ˆ ˆ 티- ˆ ˆ 니- 카): 여기에 서명해주세요.

ไฟ	파이(f)	불, 전등
หลัง	랑	~후에
ถอด	터-ˆ ˆ	벗다
รองเท้า	러-ˆ ˆ 타오	신발

กรุณาปิดไฟ หลังใช้งาน

(까루나- 뻬 파이(f) 랑 차이 응아- ˆ ˆ): 사용 후에 불을 꺼주세요.

กรุณาถอดรองเท้า

(까루나- 터-ˆ ˆ 러-ˆ ˆ 타오): 신발을 벗어주세요.

## 2. 부탁의 동사 'โปรด (쁘로-ㅅ)'

โปรด (쁘로-ㅅ): 부디 ~ 해주세요.

-โปรด (쁘로-ㅅ) + 동사

ทราบ	싸-ㅅ	알다
ประกาศ	쁘라까-ㅅ	알리다, 선언하다
สุดท้าย	쌏 타-이	마지막, 최후의
เชิญ	츠ㅣ-ㄴ	초대하다, 초청하다
ผู้โดยสาร	พู- 도-이 싸-ㄴ	승객, 탑승객

โปรดทราบ ประกาศครั้งสุดท้าย

(쁘로-ㅅ 싸-ㅅ, 뿌라까-ㅅ 크랑 쌏 타-이)

: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방송입니다.

ขอเชิญผู้โดยสารทุกท่านขึ้นเครื่องได้

(커- 츠ㅣ-ㄴ 푸- 도-이 싸-ㄴ 툅 탄 큰 크르-앙 다이)

: 모든 승객께서는 탑승해주시길 바랍니다.

ทางออก	타-ㅇ 어-ㅏ	출구, 게이트
รับ	랍	받다
กระเป๋	끄라빠오	가방
สายผ่าน	싸-이 파-ㄴ	수화물 찾는 곳, 수화물 벨트
หมายเลข	마-이 레-ㅏ	번호



## [EBS 초급 태국어]

เครื่องบิน	คร-าง บิน	비행기
ออก	เอ-ก	나가다, 출발하다
เวลา	เว-ร ะลา-	시간
รีบ	รี-บ	서두르다

เครื่องบินออกกี่โมงคะ

(คร-าง บิน เอ-ก กะ-โม-อ คา): 비행기는 몇 시에 출발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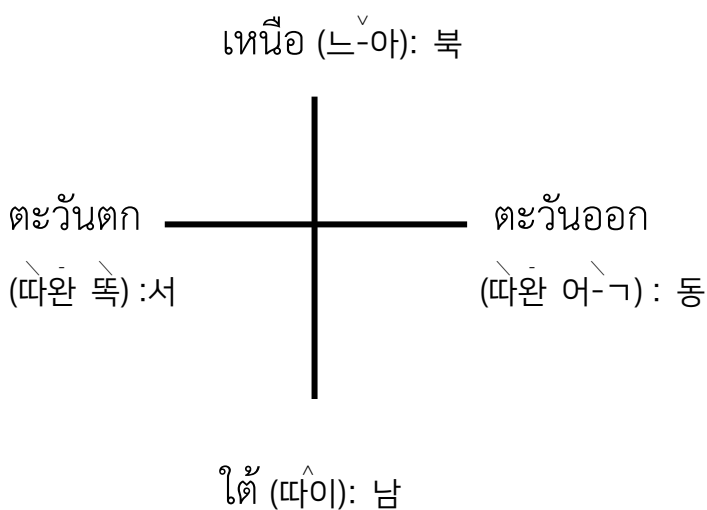
ใกล้ถึงเวลาแล้ว รีบไปสิ

(끌라이 텡 เว-ร ะลา- 래-우, รี-บ 빠이 씨)  
: 시간이 다 됐어요, 서둘러요! [명령]

ไปรับกระเป๋าที่สายพานหมายเลข 2 สะ

(빠이 랍 꼬라빠오 티-싸-이 파-ล มา-이 레-ก 씨-อ 싸)  
: 수화물 찾는 곳 2번에 가서 가방을 받아라 [명령]

### \* 4 방위



- เกาหลีใต้(까올리- ต-า): 남한
- เกาหลีเหนือ(까올리- น-า): 북한
- เอเชียตะวันออกเฉียงใต้  
(เอ-ชิ-า ต-วน เอ-ก ชี-าง ต-า)  
: 동남아시아

#### 4. 대화: 명령과 부탁 표현하기

ประกาศ: โปรดทราบ ประกาศครั้งสุดท้าย

(쁘라까-ㅅ) (쁘로-ㅅ 싸-ㅅ, 뿌라까-ㅅ 크랑 쏿 타-이)

: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방송입니다.

ขอเชิญผู้โดยสารทุกท่านขึ้นเครื่องได้

(커- 츠-ㄴ 푸- 도-이 싸-ㄴ 툅 탄 큰 크르-앙 다이)

: 모든 승객께서는 탑승해주시길 바랍니다.

โปรดขึ้นเครื่องที่ทางออกหมายเลข 10

(쁘로-ㅅ 큰 크르-앙 티- 타-ㅇ 어-ㄱ 마-이 레-ㄱ 썸)

: 10번 게이트에서 탑승하십시오.

ปอนด์: ขอโทษครับ ผมฟังไม่ทัน

(뿌-ㄴ) (커-토-ㅅ 크랍, 폼 팡(f) 마이 탄): 죄송합니다만,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น้ำ: ใกล้ถึงเวลาแล้ว คุณต้องรีบไปสิคะ

(나-ㅇ) (끌라이 텡 웨-ㄹ라- 래-우, 쿤 떠-ㅇ 리-ㅅ 빠이 씨 카)

: 시간이 다 됐어요, 당신은 서둘러서 가야만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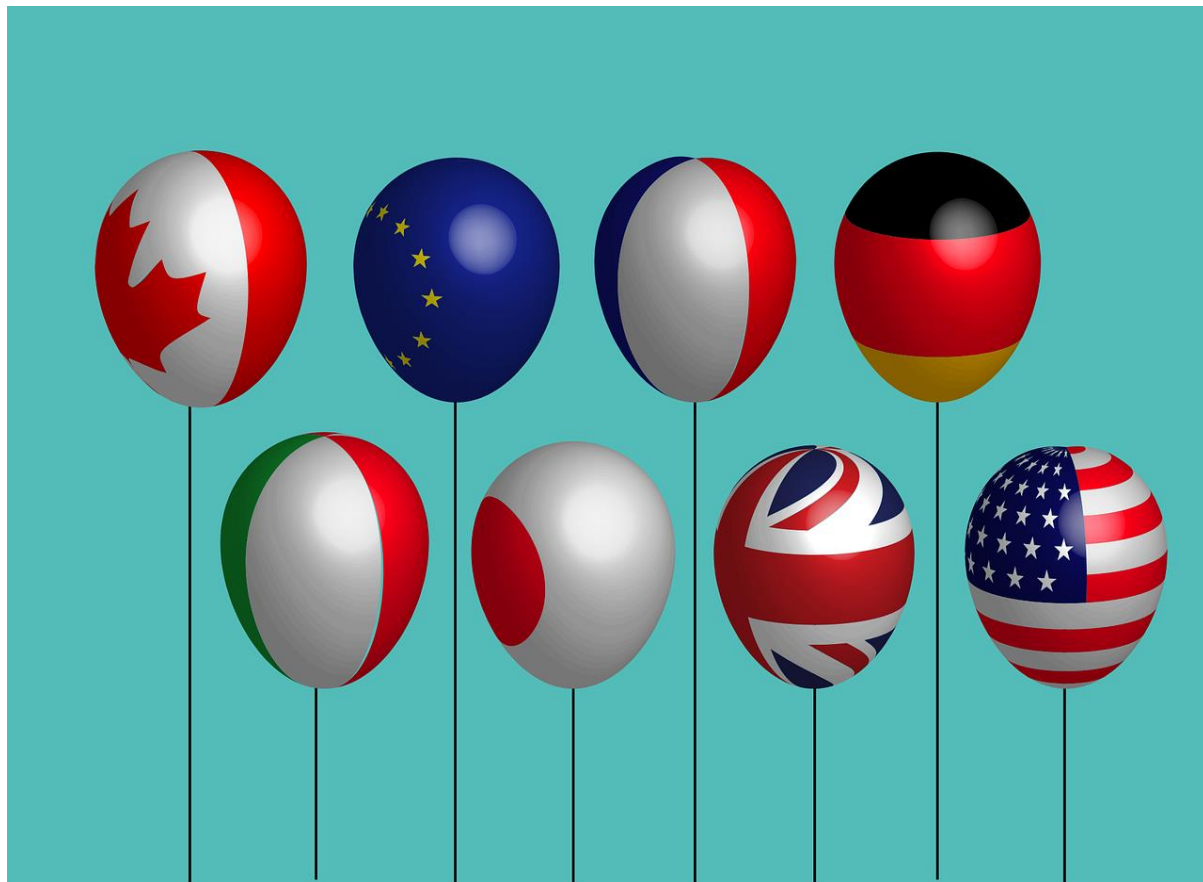
## [EBS 초급 태국어]

### 〈복습하기〉

다음의 한국어를 보고 적절한 태국어 문장을 이야기해 봅시다.

- 당신은 환전하려고 하시나요?
- 여기에 서명해주세요.
- 신발을 벗어주세요.
- 사용 후에 불을 꺼주세요.
- 10번 게이트에서 탑승하십시오.
- 귀하의 가방을 수화물 찾는 곳 2번에서 받으십시오.
-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은 똑같이 한국어를 쓰나요?
- 똑같이 한국어를 사용하지요. [강조]
- 비행기는 몇 시에 출발하나요?
- 시간이 다 됐어요, 서둘러요! [명령]

< 태국의 외교 >



(출처: <https://pixabay.com/ko/illustrations/> 국가-플래그-풍선-외교-1742134/)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지 않은 국가이다. 태국의 주변국은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는 영국,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태국은 두 서구 열강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함과 동시에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대나무 외교를 통해 자주권을 지킬 수 있었다. 한편, 태국은 한국과 북한 양국 모두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1958년 정식 수교를 맺어 수교 관계 60년을 넘어섰다. 주 태국 대사관은 1960년에 세워졌다. 태국은 북한과는 1975년 수교를 맺었으며, 1980년에 주 태국 북한 대표부를 설치하였고, 이후 1991년에야 비로소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최근 태국은 동남아시아 한류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986년 국립 송클라 대학 빠따니 캠퍼스에서 교양 과목으로 시작되었으며, 2018년 기준 11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다. 또한 2007년 도 한국어가 고등학교의 제 2외국어 교과목으로도 선정되어 130개 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기도 하다.